

[09-08-19] <예수님기도문>-김선아

2009년 7월31일 천국성령운동중

금요일 천국성령운동을 하면서 받은 예수님 기도문 이에요.

천국 성령 말씀 중에 ‘계시 받는 자는 다양하게 받으라. 는 말씀을 듣고 순간 번쩍 한 것이 ‘예수님 기도문 받고 싶다’ 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받고 싶어요. 선생님 좀 기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쓰시면서 손을 물에도 담갔다 깨물었다 예수님 사진에 놓고 기도 받으셨다는 말씀 듣고 평평 울며 선생님 위해 기도했거든요.

말씀이 끝나고 기도시간이 되니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손목이 처지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부르짖으니 기도하겠노라. 눈물로 애원하노니 적어라.'

내 하늘 아버지여. 부르나이다.

내 하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성령 운동을 내가 집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애원하나이다. 하늘 아버지 들어주소서.

하늘 그 뜻 주여. 이뤄야 되지 않겠나이까.

하늘 아버지여. 이 죄 많은 세상 어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셨을 때 내가 목숨 걸고 하늘 부르짖었다라면…….

목숨 다하였건만 또 (더 목숨 걸고)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 땅 내려 굽어보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저 마음 찢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상 내려 보는데 저 또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그리한 마음가지고, 2천년 지난 지금까지 지구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요.

마지막 천사 장 나팔 이제 불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라 이제 불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만족하시는 만큼 헤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나마 이 섭리사가 제겐 희망입니다. 하나님도 그리하시지요.

하나님 태초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이젠 정말 끝입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늘 아버지여, 이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소서.

이들을 기억하소서. 섭리사 기억하소서.

내 사랑하는 명석이, 계순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듯 저는 이 아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저도 이 아이를 이곳 가운데 가둬두고 제 재림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 세상은 그것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자를 힐문합니다.

정녕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였습니까. 정녕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였습니까.

하늘 아버지여, 재림하실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소서. 기억하소서.

제가 무릎 꿇고 울며 이렇게 간구하고 애원하옵나이다.

진정 기도하노니 이 세상 궁핍히 여기시며 구원하소서.

기성에서 그래도 나를 부르짖는 저들, 주일예배 때 한번 성경피고 말지라도, 그 때라도 나를 부르는 저들, 어찌 버리고 제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녕 그러하시다면 저도 그리해야겠지요.

주여. 하나님. 그리하오나 자비를 베푸소서.

섭리사통해 역사하여주소서.

이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나이다. 주님.

내 주인 되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 섭리사로 내가 하늘 앞 겨우 면목이 섭니다.

제가 정말 애지중지 기른 자들입니다.

그리하오니 이들 기억하소서. 이들이 지금 천국성령운동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한 곳도 빠짐없이 가서서 은혜주소서.

내 어머니, 성령을 주소서. 내가 이리 애원하옵니다.

그놈의 마귀, 그놈의 사탄, 주여 물리쳐주소서.

이 한 맺힌 세상. 이 한 맺힌 사탄. 주여. 무찔러주소서. 저도 무찌르겠으니 주여 전능의 손으로 임하소서.

(선생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생. 우리 사랑하는 명석이, 계순이 기억하소서.

선아가 선생 기도 해 달라고 이리 애원하듯이 제가 하늘아버지께 애원하노니,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 위로하여 주사 지켜주시고, 그의 육신 살피주시어 하늘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소서.

그에게 그 외에 내가 무엇을 해주겠나이까. 하늘아버지가 저를 대하시듯 저도 제 맘 묻고 그에게 갑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은 아버지 그를 기억하셔서 친히 좌정하소서.

모두 내 영을 받고 그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소소서. 그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 이뤄주소서.

사랑하는 내 애인 선아가 선생 좀 부탁하고 또 부탁한다 합니다.

내 아버지여. 오늘 그에게 가슴 뜨겁게 불을 내려주소서. 뜨겁고도 뜨거운 불을 지금 내려주소서.

지금 그는 섭리사 위해 기도하고 있나니 이글을 쓰고 있는 선아와 그 모든 자, 모두 다 기억하시며, 주님 귀히 써주시고, 각 교회서 울부짖는 자들과 예술단 모여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이 역사까지 실패하면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면목도 없으며 제 희망도 사라집니다.

아버지여, 그 2천 년 전 십자가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섭리사에 이 마지막 불을 주소서.

그리해야 이 지구 구원하여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칼날 막을 수 있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힐문하지 못하도록 명석이 기준 세웠으니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소서. 아버지 제가 더 목숨 다할게요.

아버지 제가 더 땔게요. 그러니 이 섭리사로 말미암아 뻗어갈 성령 역사로, 우리 어머니 역사로 전 지구를 구원하여 주소소서. 제겐 아버지뿐이나이다. 제겐 섭리사뿐이나이다.

주여 진정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하고 그도 하겠나이다.

마지막 그 날 까지 주여. 아버지 저도 기도하고 쫓을 테니 이 지구를 긍휼히 여겨 사랑으로 안어주소서. 지켜주소서.

그러나 이들이 정녕 그리하여도 모른다면 심판으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사람에게도 이 구원이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마지막 이 기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몸이 또 십자가에 매달릴지라도 아버지여 나는 진정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내 피눈물 기억하소서.

이 섭리사로 이 모든 지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피눈물 흘리고 또 흘리겠나이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사랑으로 감싸 안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시사 이 모든 것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하늘 역사 이 땅 가운데 이뤄지며, 하나님과 마지막 그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여. 다 들려올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마음껏 기뻐하겠나йка.
내 사랑하는 자를 두고 어찌 기뻐만 하겠사옵나이까.
그 기쁨의 날 100% 호리라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늘아버지께 영광이요, 하늘어머니께 기쁨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응답하소서.

지금 이 시간 애타게 애타게 애원하고 또 하는 자들 기름 부어주옵소서. 손잡아 주옵소서. 오직 기도하고 간 구하옵니다. 이들이 이리 간구하고 나를 부르는데 내가 어찌 이 기도를 멈출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이 섭리사 불길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진정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니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고 이 지구도 사랑하며 그 모든 자 이미 영이 된 자들까지 사랑 하니 애원하옵나이다.

나의 사랑 받아주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오직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것을 구했다. 나도 계속 기도할 테니 너도 꼭 네 기도하여라.
네가 네 기도의 그릇을 꼭 양껏 채워야만 해. 알지. 우리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자.
잘 정리해서 선생과 조은이에게 보내줘. 기도하자.

2009년 7월31일 천국성령운동중 밤 10:18에 다 적었습니다.
30분정도의 예수님의 기도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흐느끼시면서 기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